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여 혁 구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김 종 신 베 드 로
 수녀: 송 영 미 울 리 안 나
 수녀: 하 연 희 데 레 사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저녁: 오후 6시(초중고등부)		◎ 교황님의 기도지향 · 12월 선교 지향	
	· 주일: 오전 5시 30분,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청년), 저녁 8시			
평일미사	월~토: 오전 5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화·목: 오후 7시		신앙 전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문화와 대화하는 가운데 현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순례자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묵주기도: 오후3시30분)			
가정성화미사 & 성사만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 7시	봉성체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교리교사: Sr. 송울리안나, Sr. 하데레사, 안득수마리오)		초등부 교리	토요일 오후 4시30분
			중고등부 교리	토요일 오후 5시

입당송/영성체송

입당송 보 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 다
 영성체송 예 루 살렘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 고 서
 일어나 높은 곳에 서 서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 치 리 라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 보 아 라

◎제1독서: 바룩서 5,1-9

◎제2독서: 필리피서 1,4-6.8-11

◎복음: 루카 3,1-6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하셨기 에 우-리는 기-뻐하였 네

◆ 오늘의 말씀_주임신부

"하느님의 구원은 사랑"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시 힘 있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지도자에게 내리시지 않고 요한에게 내리셨는지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로마 황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주나 대사제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왔으면, 하다못해 유대인들 만이라도 그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요한에게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하느님의 구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말씀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과 사고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리 누른다고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황제나 영주, 대사제 같은 권력자를 통해 말씀을 내리면, 사람들은 마지못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시늉은 하겠지만 결코 변화되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나 영주, 대사제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행동이 없는 말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더욱이 하느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아픔을 느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과연 황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영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회개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요한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손과 발의 역할, 얼굴과 입의 역할을 할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들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우리는 항상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하고, 항상 빈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 레지오마리아에 훈화(12/10~12/16)_주임신부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서두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세월 참 빨라, 나이가 오십이면 시속 50킬로미터, 육십이면 시속 60킬로미터, 칠십이면 시속 70킬로미터로 간다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시간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똑 같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바빠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과 33년을 사셨습니다. 활동하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과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민 사람들을 다 만나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을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보다 더 짧게 활동하셨고, 더 짧게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마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면서, 천천히 살아갑시다. 부질없는 욕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진정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행 사 이 모 저 모



△ **대림특강**(12/5, 수, 저녁7시): 강사-Fr. 백승운(비오)
주제- “사랑한다, 나를”, 230여명 참석



△ **히말찬양단**: 대림특강 30분전부터 신자들과 함께 생활성가 찬양



△ **본당 김장행사**(11/27화~11/28수): 여성부



△ **성모동산과 은행나무 주변 성탄트리작업**(11/28수~11/29목)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현대옥 아중직영점	전주농약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 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 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로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콩나물 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 손주경(니콜라오) ☎284-0099 H.P. 010-3366-7575	황인수(요 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287-4900

동래분식	남문&mail. 남문문구센터	풍남문 찰쌀사탕 호떡	퍼스트키친.금동물류센터	웰빙 만나초밥
새알팔죽, 팔각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단골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6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호떡 · 오 탕 국물 표덕화(데레사) 황선철(토마스) 풍남문 로타리 H.P. 010-4651-6993 ☎232-6993	학교용, 주방용 그릇 전문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709-7 H.P. 010-7657-1606 ☎284-5627	초밥, 우럭탕, 생선회, 회정식, 회덮밥 허 재익 전주남문약기 옆 ☎예약문의 : 232-7425 H.P. 010-3277-7971

전 동 계 시 판

※ 견진성사사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금 주 모 임】

- 겸손하신모후Cu.-12:00
- 일치의모후Cu.-14:00/ ME-18:00
- 돈보스코회-12/10(월) 19:00
- 애령회-12/11(화) 11:00
- 예루살렘회-12/12(수) 11:00
- 순교자현양회-12/14(금) 12:00
- 사베리오회-12/14(금) 19:00

● **대림시기 실천사항:** 신약성경 서간문 읽기, 대림특강 듣기, 판공성사 보기, 평일미사 주1회 참석하기, 외식 줄이고 봉헌하기

● **금년도 교무금 납부와 함께 내년 교무금 책정을 바랍니다.**

● 제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 **성서40주간 강의:** 12/12(수) 19:30, 12/13(목) 10:00

■ **구역반장회의:** 12/14(금) 11:00, 윤지충출

■ **성탄 판공성사표와 내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매 미사 20분전

■ **삼십사부님 초청 판공성사:** 12/18(화) 저녁 7시 30분-8시 30분

■ **순례지를 위한 묵주기도 & 미사** (주일미사 대체가능)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30분전 묵주기도)

■ 다음 주일은 자선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12월7일 현재)	509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284-3222)

◆ **떼제성과 함께하는 미사:** 오늘 오후5시

우리들의 정성 (11월26일~12월2일)

· 주일헌금:	4,708,100	· 교무금:	9,371,000
· 오문술(바오로)	100,000	· 감사헌금:	
· 유정순(수산나)	50,000	· 이영임(마리아)	200,000
· 장은수(요 한)	200,000	· 김정옥(안 나)	100,000
· 석재성(요 셉)	100,000	· 익 명	3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 | |
|---------|---|
| √ 회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 √ 납부방법: |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

일 시	차 주 미 사 전 레 안 내					
	5시 30분	9시	10시 30분	오후3시	오후 5시	저녁 8시
해 설	방현옥(레지나)	이윤이(안젤라)	김문정(디나)	꿈 (CUM)	청년	황혜경(미카엘라)
독 서	유교순(베로니카) 김호순(루치아)	윤대근(돈보스코) 박태연(마르타)	김관식(율리오) 유향자(베로니카)	꿈 (CUM)	청년	최세호(타대오) 방갑남(율리안나)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하늘해외여행사	갯마을회관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젤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우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상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 010-3621-6007 ☎282-9241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해물탕, 아구백반 이한금(분다) 남문약기사 앞 H.P. 010-3684-3339 ☎282-0876, 282-1289